



'17년 8월

#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2017. 8. 23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작성자 조직담당관 : 김정호 ☎2133-6720 시정연구팀장 : 박재민 ☎6740 담당 : 설정환 ☎6747

'17년도 8월

#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 일 시 : 2017. 8. 23(수) 14:30 ~ 17:30
- ◆ 장 소 : 공용회의실(신청사 8층)
- ◆ 참 석 : 11명 외부위원(7), 내부위원(4)
- ◆ 심의안건 : 12건
- ◆ 심의결과 : 적정 6건, 부적정 6건

## 2017년도 8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일시 2017. 8. 23.(수) 14:30

장소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간 사

안녕하십니까? 학술용역심의회 간사를 맡은 조직담당관 시정연구팀장 박재민입니다.

앞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위 원 장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 일동 박수! )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내부위원으로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 일동 박수! )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000 위원

안녕하세요?

간 사

오늘 00 위원님과 00 위원님께서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전체 13분 위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11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은 심의안건 전문성을 위해서 특별위원으로 모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심의안건은 17년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심의 11건하고 재심의 한 건입니다.  
총 12건이고요.  
재심의는 안건 5번인데, 지난 6월 심의 때 과업내용 보완 등으로 해서 부적정의결 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건별 사전분석표를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회 개최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심의회 운영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000입니다.  
오늘 사실은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처음 맡는 용역 건입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 일동 박수! )

여름이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무섭습니다.  
오래간만에 학술용역심의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조금 신경 써 주실 게 통상은 발표자가 계실 때 주심교수님이 의견을 개진하시면서 이 안건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심교수님이 그런 적정, 부적정 얘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심교수님도 하나의 질문 형태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혹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쪽 부서에서 섭섭한 감정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선생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심의기준 같은 거는 이미 선생님들이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같은 팀에서 두 건씩 하는 게 있어서, 네 번째 안건이 두 번째 안건으로 가고요.

두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이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호 안건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 시행계획 보완(안) 수립연구**

###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앞으셔서 본인소개 하고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분을 안 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1호안건설명자A

대기정책과 대기정책팀장 이병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용역심사 올린 것은 두 건이라서 두 건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 제1호 안건설명

### 제1호안건설명자A

첫 번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 변경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시행계획도 변경하는 용역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에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9조에 따라서 서울시 시행계획도 1년 내에 용역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변경된, 수정된 전망 배출량하고 저감대책 추진에 따른 삭감량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대기환경개선 목표, 그다음에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및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전망, 그다음에 배출원별 배출허용 총량 저감 계획 등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4호 안건

###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연구

## 제4호 안건설명

### 제1호안건설명자A

첫 번째 것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및 2030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상반기 5월27일 날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 3,000명의 시민이 모였던 것처럼,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환경복지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인벤토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2년6개월, 반으로 줄여서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번에 시기를 반으로 줄여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공간적 범위는 당연히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초미세먼지 감축전략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거는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인벤토리를 하면서, 2030년까지의 대기환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로드맵 마련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1호, 4호 안전심의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용역 다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한의 조건이 뭐라고 보시는 거죠?

제1호안전설명자A

용역 이전에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그런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런 데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위 원 장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 혹시 첫 번째 과제와 네 번째 과제를 외부용역을 썼을 때 대기정책과는 무슨 역할을 하실 겁니까?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대지정책과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제1호안전설명자A

2014년도에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대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 대책발표 했는데 그때 목표가 2018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하면서 주변환경 이런 분석을 하는 부분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대책을 만들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6월1일 날 대책 발표할 때 재난... 미세먼지를 규정을 했고 조례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용역들을 관리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 쪽도 있었는데 저희가 요새는 건강위해성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대책들을 해가려고 그러합니다.

지난번에 6월 달에 대책한 것은 저감 쪽도 분명히 필요한데, 마스크를 배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공적 보호조치 이런 부분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용역 하는 부분도 저희 입장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 원 장

혹시 건강과 산업들 중에 포인트를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차피 해결해야 될 난제일 텐데요.

제1호안건설명자A

사실 그 자료들이 옛날에 경기도에서 2003년도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고요.

위 원 장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팀장님이 확실히 갖고 있으셔야지 이런 프로젝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이 시작을 하시면 뭐라고 용역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셔도 따르실 가능성이 큰데, 그거에 대한 기준점은 적어도 대기정책과는 갖고 계셔서,

제1호안건설명자A

보통 건강위해성 같은 경우는 일반사람들에 대한 위해성도 있고 미세 먼지 취약계층, 어린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취약한 부분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각자 그분들에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건강 쪽에서 신경쓰시고요.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중앙법이 바뀌었으니까 광역에서 따라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과 자체에서 예측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용역과제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니터링 했던 그런 거를 가지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제안서 여기를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있지, 여태 대기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수도권대기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하셔야지 골이 생겨서 정확한 용역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보완돼야지 아마 조금 더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수많은 얘기가 얘기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건강의 위해성에 대한 이슈여야 되는지 아니면 여야 되는지 방향이 안 잡혔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들만 모아서 그 내용들의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분석하고, 서울시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조금만 짚어주신다면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탁 던져놓고 연구자들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1호안건설명자A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 위원

배출원별 오염물 영향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올해인가요, 인벤토리 구축 모니터링해서 발표하셨잖아요.

제1호안건설명자A

4월에 했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더 상세하게 되는 건지요.

제1호안건설명자A

흐름을 보기 위해서 배출원 부분을 보고, 요새 오존 부분도 중요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존 같은 부분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같은 거라면 그렇게 중복될 것 같고, 또 언론 보면 오염원에 대해서 국내, 국외 요인, 또 국내에서도 서울시내인지 또 충청권의 화력발전소인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정밀하게 해서 결정을, 자료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게,

제1호안건설명자A

2011년에도 들어있었고요.

2016년도에 들어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흐름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에,

000 위원

2차 수도권 대기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바꾸시는데, 이것도 2차 계획이 2015년부터 시작해 왔잖아요.

그런데 많이 늦어진 셈이네요, 계획 자체가요.

제1호안건설명자A

올해 5월에 변경을,

000 위원

그거 변경을 한 거에 따른 또 변화.

제1호안건설명자B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거기 따라서 저희가 19년까지 기본계획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목표를 강화시키면서 그 사이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 대책에 물량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수립하게 됐습니다.

000 위원

그래서 일종의 모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게 맞는데,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대기오염도 분석을 주로 지역평균 측정망 위주로 발표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체감오염도하고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로변 측정 한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동안 분석을 했는데 별로 발표가 안 됐었는데, 주로 도로변으로 많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가 중국이 원인이나 그 문제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특별히 2차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2차 미

세면지의 발생원에 삭스, 낙스를 포함하면서 그거를 제대로 배출원의 비율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환경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잘 명시를 하셔야 하고, 초미세먼지 특히 그럴 때 중요한 소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에 서울시가 도심지역을 교통특별대책들인가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 제대로 하는 게 남아있는데 쉽지는 않죠.

해외처럼 상당히 올려야 되는데 주민들 수용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워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서울 개선하기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지만 충분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도 있는 제도 하에서도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게 많은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그거를 맡고 있어요, 대기 관련 업무를요.

자치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VOC 자동차도 장시설 같은 데 보니까 검사하러 나간다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순간에 카트리지를 바꾸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방지사설이 오히려 오염원이 경우도 여러 해 전의 얘기입니다마는 있었습시다.

그래서 거기 이런 발생원 되는 감시나 오염물질 감측 이런데 시민이 감사관이나 이런 형식으로, 적절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존 말씀하셨기 때문에 6, 7, 8월은 오존을 볼 수 있잖아요.

미세먼지 한동안 잠잠하던데 오존층에 VOC 대책 잘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초미세먼지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미세먼지 정의부터 ...대략 정리된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별 특성까지 잘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용역도 상당히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2차 미세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삭스, 낙스 나오면 몇%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조건을 갖고 2차 미세먼지의 기여도를 평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세모니터링 회수도 보니까 제가 얼추 산수계산한 거는 맞

지 않아요, 계획표에 보니까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회수 같은 데 검토하는 것하고, VOC가 사실 서울은 상당히 문제예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 열심히 안 해서 ... 할 수밖에 없는데 오존은 선진국도 해결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 초미세먼지 못지않게 오존에 대한 대책이 보다 철저하게 수립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1호안건설명자A

알겠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000 위원

질문.

위 원 장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환경 초미세먼지는 대표적인 외부성이 높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각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로드맵 혹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서울시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제1호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000 위원

그래서 각각 다른 차원의 정부, 혹은 지자체 간의 로드맵들이 서로 상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 친산업정책 간에 상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 문서에서 보면 그런 다른 지자체, 중앙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상충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나 다른 또 지자체와의 논의가 있었나요?

## 제1호안건설명자A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실행계획이 바뀌는 것도 이거는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바꾸면 수도권에 있는 3개 시도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같이 바뀌가는 절차들을 밟고 있고요.

예를 들면 수도권의 운행제한조치 취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기환경청하고 3개 시도가 협의해서 절차들을 마련해서 양해각서를 쓰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대책을 만들어냈을 때 11개의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환경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7개 과제는 법률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국토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면서 저희들이 꾸준히 환경부도 가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대기환경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안했던 대책들을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의견조회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협력해 나갈 겁니다.

## 000 위원

일원배출원 같은 게 예를 들면 경기도나 이전에 사실은 등록됐지만, 서울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죠.

또 지방에 등록되어 있지만 고속버스나 화물트럭들이 서울로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인벤토리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나요? 실제로 운영 차량에 대한 인벤토리요.

과거에는 등록 위주로 했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는요.

실제 운행된 차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인벤토리를,

## 제1호안건설명자B

그거는 각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인천이라든지 서울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1일 주행 평균거리 있잖습니까?

자동차 대수의 주행거리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다음에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교통 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델링 같은 게 가능하더라고요.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그런 예측 같은 것 통해서 실제 배출량 위주

로 해야 되는데, 등록차량 위주로 하면 오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1호안건설명자B

그런 부분들은 인벤토리 운영을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000 위원

인벤토리에 반영해 주세요.

제1호안건설명자A

이번에 4월 달에 발표한 게 이동오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출량들은 나와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챙겨봐서 하겠습니다.

000 위원

실제 이동차량 위주로 되어 있는가, 실사자료가 없으면 모델링 같은 것 통해서라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000 위원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요.

애기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초미세먼지를 재는 기계가 일부러 낮추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업체에서 일부러 낮추어서 조절했다는 나쁜 루머들이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조그마한 애들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열심히 해주셔야지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호안건설명자A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발표자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호안건설명자A

고맙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낮췄다는 게,

000 위원

기계를 일부러 낮춰서 재계 한다는,

위 원 장

소위 털 나오게요?

000 위원

예, 그렇게 그런 소문이,

위 원 장

낮은 농도가 나타나게요.

000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학교에 다른 시설을 했는데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죠.

위 원 장

주심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평가, 1번, 4번이요.

000 위원

이거 관련이요?

위 원 장

예.

000 위원

1번은 사실은 이번에 미세먼지 강화되면서 모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초미세먼지는 요즘 전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도 비교적 상세히 했는데 제가 아까 보완사항 말씀 드린 것이고,  
어느 정도 경험도 있는 팀이고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1호, 4호 안건결론

위 원 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표  
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몇 분이시죠?

카운터 해주시죠.

만장일치로 첫 번째 안건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한분.

위 원 장

이 역시 적정으로 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후속 연구

위 원 장

그다음에 세 번째 안건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과 네 번째 안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셔서 본인소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안건하고 세 번째 안건 같이 설명하실 거죠?

제2, 3호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 3호안건설명자A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 미디어정책실 연구위원 김연수입니다.

위 원 장

말씀해 주십시오.

**제2호 안건설명**

제2, 3호안건설명자A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TBS는 두 개의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가칭 TBS 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연구와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 개선실행방안 연구입니다.

먼저 가칭 TBS 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연구에 대해서 간



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16년2월 완료된 TBS 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지난 연구에서 제시된 TBS 교통방송 발전전략의 적용으로 법인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발생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적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2월 연구용역 완료 이후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 마련되어 일부 타당성검토 기준의 변화가 있었고, 행정자치부 또한 지난 5월에 이를 반영한 타당성 검토요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7월에는 TBS 재단법인화를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시장 지시사항이 있어서, 중장기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가칭 TBS 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미디어환경이라든가 일부 검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존 연구진과 2개월간 1,650만 원의 수의계약을 통해 바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거하여, TBS 교통방송재단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중장기 경제적 효과 분석, 조직인력운영방안 제시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재단설립 예정일이 17년에서 19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기적 변화를 고려하여 검토기간을 연장하고, 신설된 설립기준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BC분석을 하는 등, 중장기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번 후속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일환으로 TBS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심의신청을 낸 또 다른 연구가 바로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 개선 실행방안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근로자성 및 상시업무 지속성 등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으로 전환이 결정된 인력 등에 따라 비용 및 직무체계 등을 이 연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심화되고 발전된 TBS 교통방송재단 법인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위원장

예, 세 번째 어차피 말씀해 주십시오.

### 제3호 안건

####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 개선 실행방안 연구

##### 제2, 3호안건설명자A

바로 이어서 다음 연구용역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고용모델 개선 실행방안 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TBS 교통방송 내에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고용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프리랜서 전환 직군의 합리적 인사시스템과 또 미전환 직군의 고용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프리랜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 발주하라는 시장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특수고용 비정규직 역시 이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TBS 내에서는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PD, 작가, 리포터 등 기존 조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형태 직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은 향후 고용관계 전환 단계별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송계 전반에 노동환경이나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역시 이 연구가 추진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요.

이 연구는 2개월간 총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정부 및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검토하고, TBS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대상 및 고용모델을 마련하되, 미전

환 대상의 인력운영방안 역시 연구함으로써,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인사제도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환대상 직군 관련 직무체계의 설계라든지 평가체계, 임금테이블, 교육시스템 등 또한 주된 연구결과로 도출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결과는 TBS 새로운 고용모델 마련을 위한 자료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경우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비용 및 직무설계 등을 TBS 재단법인화 타당성 검토 연구에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주관부서로서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고용모델 창출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 3호 안건심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하시죠.

000 위원

첫 번째 과제,

위원장

재단에 대해서 먼저요.

000 위원

제출하신 과업내용서를 보면요,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작년 2월 달에 된 연구에서 제시된 타당성 조사 분석 및 설립 운영기본계획 등 연구결과를 인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제2, 3호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그리고 나서 후속연구에서 또 이것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변화가, 그러니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여기 표현으로는 강화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이거를 다시 해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제2, 3호안건설명자A

일단은 저희가 재단법인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단설립 예정일이 17년에서 19년으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기본검토 기준에서 타당성검토 기준, 특히 경제적 효과 부분이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법안은 BC분석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또 일부 적정성 검토에서 타 대안과 비교라는 새로운 조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5월에 행정자치부 방문 결과, 새로운 타당성검토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연구결과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저희가 변화된 미디어환경이라든가 설립연도 변경이라든가 일부 보완해야 될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000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 원 장

하십시오.

000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은 BC분석에 있어서 5년이 10년으로 늘어난 설립기준의 강화가 주요 이유인 것 같은데요.

물론 BC분석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라서, 기간이 늘어난 거가 쉽게 업데이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규과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혹시 예를 들면 전에 이 연구를 하셨던 연구단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A\S 이 정

도로는 안 될까, 그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2, 3호안건설명자A

일단은 이런 BC분석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송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분석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지난 연구에서 담당하셨던 회계사분께 어느 정도 자문을 받은 상태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자문이 아니라 공통된 종합보고서 형태로 처음부터 받기를 바라서요,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기획을 하게 된 게 사실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요구사항이 가장 첫 번째로 다시 후속연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원 장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시게 됐죠?

이 기관이 지난번 보고서를 쓴 기관입니까?

제2, 3호안건설명자A

예, 지난번 보고서를 쓴 기관이고 가장 빨리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수 있게,

위 원 장

...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과제랑 첫 번째 과제가 닭이나 달걀이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재단화가 되고 그러면 고용에 대한 제도 자체도 같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제2, 3호안건설명자A

이 연구를 같이 합쳐서 하지 않고 왜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 지시사항이 재단법인화를 조속히 추진하되, 프리랜서 관련 연구용역은 별도 분리발주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왔었고요.

000 위원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제2, 3호안건설명자A

예.

두 가지 지시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 것이고, 두 연구를 합쳐서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과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연내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문성 측면에서 봤을 때 프리랜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노무사 등 노동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회학자 중심의 연구가 될 것 같고, 또 재단법인화 타당성연구 같은 경우도 방송사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언론학과 또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경제학 전문가들이 포진을 주로하게 될 것 같아서 두 연구를 분리하되, 주관부서로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소통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TBS가 공영방송으로 좋은 역할을 하시지만, 세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세금하는 문제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하면서 좋지만, 사실 공익적 측면과 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셔서, 만약에 두 번째 연구를 하셨는데 나중에 바뀌었으니까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렇게 제출되지 않게 이 정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2, 3호안건설명자A

예, 감사합니다.

위 원 장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두 번째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 관련해서 몰라서 여쭙보는 건데, 비정규직 고용모델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2, 3호안건설명자A

비정규직 고용모델이요?

아니요, 저희가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고용 형태로는 고용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000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용모델 개선 실행방안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용모델은 기존에 있는 거고 그거를 개선 하려는 의도인가요?

제2, 3호안건설명자A

현재 고용환경을 통틀어서 모델로 지칭을 한 것인데, 현재 고용상태에서 보다 나은 처우개선을, 보다 나은 모델을 만들겠다는 ...

000 위원

두 가지인데요.

제가 비정규직 그쪽 관련해서 과업 내 솔직히 모델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게 당사자 간 협의나 이런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데 협의모델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모델링이 계속 나오는 건데, 과연 특정기관의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이라는 게 구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델이라는 거는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모델을 만든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2, 3호안건설명자B

미디어정책실장입니다.

그 측에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 같은 것은 일반화된 부분이 많은데, 방송사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수한 형태, 여러 가지 직종이나 고용 형태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행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사실상 정규직화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나름대로 개개인별로 특성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TBS가 타 방송사에 앞서가지고 선제적으로 특수고용 프리랜서들의 고용 형태를 이런 정도의 부분은 정규직화, 이런 부분을 계약직화, 이런 부분은 또 기간제고용 이런 것으로 모델을 한번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000 위원

그러면 직무분석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2, 3호안건설명자B

그것도 연구진의 판단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00 위원

일반적으로 TV를 보다 보면 프리랜서들 하는 일이 풀타임하고 달리 맡은 일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직무분석 없이 현재 프리랜서들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한 변환 없이 고용조건만 개선한다는 것은, 향후에 TBS의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아닐까요?

제2, 3호안건설명자B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거를 정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규직 전환규모를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

제가 보면 국가에서 하는 방송국도 보니까, 평가를 해서 보니까 직무분석을 안 하더라도, 방송국들은 안 하나 봐요, 직무분석을요.

제가 왜 안 하시냐고 여쭙분, 2년 연속 안 하셔서 여쭙봤더니 하면 자기들이 하면 베러포지션이 될 수 있는 답이 나올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체계 자체가 직무에 대한 개념이 약하시긴 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델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아니면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다른 공영방송도 비슷한데 없어요.

업무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연구를 좋게 하셔도 나중에 업무량 판단이 바뀌고 그러면 이게 다 뒤집히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 원 장



다른 질문,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저는 기술심사담당실에서 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혹시 타 시도나 이런 데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나 사례를 읽어보거나 이런 게 있으시나요? 들어온 게 있나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2, 3호안건설명자A

타 시도 관련 자료를 제가 몇 개 가지고는 있습니다.

000 위원

비슷한 게 있나요?

제2, 3호안건설명자A

제가 정확한 풀네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된 연구를 시행했고, 일단 서울시 내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된 연구는 많이,

000 위원

아니요, 방송 분야에 대해서만요.

제2, 3호안건설명자A

그런데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000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변경 돼갖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대상자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내부적으로요?

협상에 의한 계약한다면, 제한경쟁한다면 ...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 이런 ... 없습니까?

제2, 3호안건설명자A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000 위원

그래서 없는 사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 자체를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이라고 하지만 세밀하게, 아까 보니까 과업내용에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사례가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혹시 나중에 혹시나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 3호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두 번째 것은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 개발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네요, 내용을 보면요.

제2, 3호안건설명자B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제2, 3호안건설명자B

예.

000 위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시장님 지시 안 했으면 안 하실 건가요?

제2, 3호안건설명자B

저희들이 직접 선도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000 위원

답변이 굉장히 우회적인데요.

위 원 장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2개월 2,200이죠?

제2, 3호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

2개월에 외부용역이 방송 쪽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외부에 계신 분이 일을 파악하는데도 2~3개월이 걸릴 텐데, 2개월에 하겠다는 것은 안 하니만 못 한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결국은 하실 분들이 앞에 계신 두 분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 3호안건설명자A

일단 우려하시는 게 용역기간이 과업내용에 비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에 비해서 너무 짧다고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프리랜서 노동현황 실태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기초데이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 원 장

어디에서 하나요?

제2, 3호안건설명자A

자체적으로 7월25일부터 9월2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소위 시간과 품이 많이 들게 되는 각 프리랜서 근로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대상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 도출할 예정입니다.

위 원 장

결국은 방패막이가 필요한 거군요.

답은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 설명자 퇴장. )

첫 번째 안건 먼저 말씀하시죠.

재단설립 문제인데요.

000 위원

조금 필요성은 인정해서 하는데 이거를 꼭 새로 다시 발주를 할 정도의 과제인가, 전에 했던 분들이 수선을 해주시면 안 될까 했는데, 행자부가 그렇게 요청한 거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그런데 000 위원님은 논의필요라고 하셨잖아요.

000 위원

괜찮습니다.  
주심위원님 말씀대로,

000 위원

비슷한 의견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 제2호 안전결론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거는 토의를 그만 하고 걱정여부를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재단설립에 대한 안전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간사

열분 걱정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예,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이 안전 걱정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쪽에 대한 주심위원님.

000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KTB 같은 데를 평가해 보면, 거기도 자기의 업무량 기준 없이 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꾸 아까도 여쭙봤던 게, TBS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겠지만, 업무량에 대한 계산이 분명히 되어 있느냐가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와 준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걱정이라고 했던 게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싸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험적, 이 정도 사이즈로 안 하니만 못 한 연구가 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방송국에서는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많은

데, 이런 시도를 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위 원 장

저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이미 저 앞에 있는 분들이 답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서 외부용역한테 책임을 미루는 용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000 위원

노무사나 이런 분들 해가지고 문제 없는 쪽으로만 가시려고, 그래서 저도 밑에 쓸 때는 외부자문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는 해봤는데 일단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니까요.

000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과연 이거를 모델을 정립했을 때 과연 활용가능성이 있느냐, 일회성에 끝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방송인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 해야 될 기관들이 많은데, 다 용역해야 되는 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런 우려점이 있는 것 같아요.

000 위원

모델 적합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000 위원

모델이라는 말을 쓴 게 사실 문제는 있죠.

000 위원

그런 데다가 위험해요.

모델이 정립이 되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비즈니스가 위험한 것 같아요.

000 위원

000 위원님, 하나 여쭙볼게요.

재단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프리랜서들을 몇 개 프리랜서 단위를 묶어서 하나의 정규직화를 한다고 하면 정원 둘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000 위원

여력이 없죠.

정규직화를 어떤 개념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 기존에 정규직화라고 했을 때 공무원 신분으로 되는 정규직화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제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재단으로, 현재 상황에서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직무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돼서 실제 정원으로 흡수가 가능하게끔 이런 업무량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단으로 가면서 이 부분을 같이 가는 게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사이드노트 하나 하면, 또 최근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경영효율성을 이유로 지나치게 외주를 맡긴다든가 해서, 고용안정성을 불필요하게 낮추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공공기관이 이게 모델이라고 그러면 이게 답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이런 식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을 공공기관이 보여줄 필요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위 원 장

그런데 방송국이라는 게 창조를 하는 데인데,

000 위원

반대가 맞는 것 같아요.

위 원 장

그런 분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 배우들을 정부 소속으로 해갖고 월급 주지, 이거는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닌가요?

그분들까지 미리 정식화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드네요.

000 위원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 책임운영 되고 나서 정규직들을 다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을 월급 주는 사람으로 만드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거

예요.

오디션 보고 이렇게 하는 컴피티션을 넣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거를 고용안정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직의 성과나 분야의 특성을 보면 경쟁이나 마켓, 그다음에 고용시장의 오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접근이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위 원 장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000 위원

직무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과연 업무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프리랜서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분야가 정규직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 부분 같이 논의가 되면서 하다 보면, 이런 분야 쪽은 정규직화 가능한 부분들, 아닌 부분들이 구분이 되고,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라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000 위원

너무 지나치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했으니까 최소한의 개선의 필요성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그거는 고민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000 위원

연구용역심의가 올해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000 위원

다음에 정기심의가 있습니다.

000 위원

언제죠?

000 위원

9월이요.

000 위원

실태조사를 9월22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요.

실태조사를 일단 한 다음에, 그것을 요약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보고하고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게 하면 어떨까요?

위 원 장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는,

000 위원

심의보류를 시키고 다음번에,

위 원 장

심의보류라는 게 할 수가 있나요?

간 사

없습니다.

부적정으로 하고,

위 원 장

부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쓰는 거죠, 하게 된다면요?

간 사

의견을 넣어서요.

000 위원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에 기반해서 다시 한 번 논의,

위 원 장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네요.

적정이 있고 부적정이 있고 부적정 후에 나중에 심의하는,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관계자

재심의라고 표현합니다.

### 제3호 안건설명

위 원 장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한번 거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논의는 다 된 것 같아서요, 생각하신 다음에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없습니다.



위 원 장

없으시네요.

그다음에 이 안건을 재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아홉분.

위 원 장

그러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한분.

그러면 이 안건은 재심의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적정으로 표시하고 재심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000 위원

하나 더 보완할 것은요, 이 내용에 보면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니까요, 기심에서는 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로 보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비단어를 쓴다면 허접해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목적이랄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추후에 재심의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면서 과업내용 보완해서 심의요청이 될 수 있도록,

위 원 장

그러면 팀장님은 그렇게 기술을 해주십시오.

**제5호 안건**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장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

위 원 장

그러면 다섯 번째 안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아마 재심의하기로 한 모양이네요.

그때 아마 제대로 설명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인소개해 주시고요.

제5호안건설명자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옆에는 담당주무관 방지혜 주무관입니다.

위 원 장

과장님이 직접 오셨군요.

제5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제5호 안건설명**

제5호안건설명자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장기플랜 마련을 연구용역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소규모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핸드메이드 작가 또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핸드메이드 여러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고 교육, 창작기회의 제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집중하는 것은 핸드메이드 마켓, 시장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판로 기회를 지원하고자 그런 사업에 대한 연구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한 19개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핸드메이드가 아닌 곳도 있기는 하지만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와 협업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해외에, 특히 유럽 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마켓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서울시의 장기플랜으로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5호 안건심의**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000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 원 장

하십시오.

000 위원

수정보완된 과업내용을 보면 현황파악과 핸드메이드 마켓의 성과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이 마켓을 활성화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효과를 가져다 주느냐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 같아서요.

보니까 만약에 경제적 효과가 없고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발전방안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겠다,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닌가.

제5호안건설명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 부분을 보시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사업체수라든지 고용종사자수 이렇게 그냥 피상적인 부분만 연구된 것이 있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수작업으로 하는데, 이거를 팔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제약적이고 방법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켓, 저희는 시민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마켓 속에서 시장기획자 또는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작가들의 수치라든지 그분들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정함으로써 인해서, 예를 들면 그 마켓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됐든 경제적 매출 극대화 됐든 이런 경제적 효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국내 사례라든지 해외사례들을 보고 그것을 서울지역에 맞는 형태로 유형화시킨 모델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바로 발전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00 위원

제가,

위 원 장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핸드메이드 하면 생소하기도 한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쪽에, 공예 쪽에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올해도 여성공예플라자라고 해서 4,000평 규모로 크게 해서 오픈을 한 게 있었고, 또 올해 야시장에도 전부 다 네 군데 확대하면서 핸드메이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창작공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런 쪽에 관광이나 문화자원으로서 핸드메이드가 가능성이 나 시장성이 있는지 그런 거,

제5호안건설명자

실제로 그런 가능성은 야시장을 3년째 운영하면서 방문객이라든지 참여 셀러의 매출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핸드메이드 마켓은 야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기획자라고 민간 주도의 마켓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협업관계를 조금 더 깊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규모도 작으면서 정기성, 일상성을 가지고 작가들이 얼마만큼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남동의 따뜻한 남쪽이라고 하는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혹한기라든지 혹서기 이런 때에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보완대책도 같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모범사례로 LA, 도쿄, 런던 세 도시를 써놓으시고 이거를 현지조사하시겠다고, 예산서에 보면요.

세 도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1차 때 수의계약을 통해서 서울연구원에 하겠다는 지적을 받았었고요. 저희가 내부심사하면서 이쪽에 종사하시거나 전문성을 가지신 교수님들 의견은 해외사례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유럽 쪽하고 미국의 포틀랜드,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은 있고요.

대신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유럽 쪽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켓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에 또 논의되실 수도 있는데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 부분이 혹시 말씀이 된다면, 저희가 국내에서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통해서라도 연구를 꼭 해보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000 위원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우려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핸드메이드마켓이 우리의 정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장인에 대한 우대라든가 가치에 대한 고려가 훨씬 더 우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달라서 현지조사 해외사례를 발굴하시는 거는 좋기는 한데 적절한 기준에서 맞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도시를 잘 고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고르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제5호안건설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LA나 도쿄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영국 런던의 캠든마켓이나 독일 베를린의 마우어마켓, 프랑스 ... 프리마켓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00 위원

예산서에는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5호안건설명자

1차 때 나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000 위원

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인력을 보게 되면, 특히 조사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실제로 필요가 한 것인지, ...

제5호안건설명자

작년부터 근무하면서 그거를 전체 조사해 보고자 양식표를 만들어서 구청에 한번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하는 것은 장터 같은 경우는 자료표에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민간이 자생적으로 공간을 빌려하는 것들은 조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현황통계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참여자나 기획자의 인터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인력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마저도 과하다고 판단하시면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이거에 대해서 주심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필요라고 하셨는데요.

000 위원

먼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럽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마켓 이런 것을 모델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에 사실은 반하거든요.

시장에 개입을 해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확한 시장실패요인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수제맥주 만드는데 있거든요, 중소기업체들이요.

시장실패가 분명히 있어서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시장실패요인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

위 원 장

잘되고 있는데, 지원이 없어서 잘되고 있는데 굳이 지원을 왜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000 위원

예.

왜냐하면 또 여기 분명히 들어가면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고, 핸드메이드마켓에 대한 개념정리도 잘 안 되어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시장을 오히려 교란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차마 여쭙보지는 못했지만, 글썽요.

위 원 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요.

그런데 9,000만 원이면 누구를 상대를 하는 거라도 굉장히 과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통상 이 정도면 한 3,000만 원 되지 않나, 해외여행만 안 가신다면요.

000 위원

해외가 많이 잡혀있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

위 원 장

그런데 그것도 본인은 안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또 하셔서, 아주 줄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잘못 줄이면 오히려 소상공인들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00 위원님께서서는 과감하게 부적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000 위원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입니다.

기존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예플라자도 만들어졌고, 이게 사실 경제파트에서는 생소한 분야일지 모르겠지만, 여성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서포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실태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난번에는 굉장히 공간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공간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톨이 뭐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공간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것은 뻔하다. 무슨 학술용역 대상까지 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위 원 장

000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

이 부분 자체가 000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주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실패의 영역이 어디냐는 부분들. 그럼 과연 유럽이나 이쪽은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원을 통해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치가 되는, 모순이 되는 상황이라고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싶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보고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러니까 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판을 깔아줄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보고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 안 되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치유해 줌으로써 그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지 장소의 문제가 사실 쉽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다냐.

규제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예산안은 000 위원님은 걱정하다고 생각하세요?

000 위원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조정계획 예산안은 이게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해서 나온 안인가요?

000 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게 걱정하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삭감을 시켜야 된다 그런 안입니다.

위 원 장

7,000으로요?

000 위원

예.

위 원 장

7,000도 많아보이는데요.

000 위원

예, 7000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 관련해서 최근에 청계천, 여의도, DDP하고 네 군데를 야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나가보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핸드메이드마켓이 보면요.

또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국내외 방문객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 핸드메이드가 제일 적합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조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봐서 핸드메이드로 잡았는데, 이게 과연 그 정도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실무적인 고민에 의해서 뭔가 연구방안을, 발전방안을 내고 싶어서 아마 이것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예산은 과다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 제5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러면 이 심의를 두 가지로 할까요.

일단은 자체가 필요하냐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예산이 적정하냐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네 분.

위 원 장

논의할 게 없네요.

네 분이 찬성하셔서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잠깐 쉬시거나 그럴 필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하겠습니다.

000 위원

12개이니까 6개까지 하고 쉬시죠.

위 원 장

잠깐 설까요?

그렇게 하시죠.

#### 제6호 안건

서울로 식생의 의미와 환경 관리방안연구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서울로운영단이신가요?

제6호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앉으십시오.

본인설명해 주시고요.

## 제6호안건설명자

서울로운영단 실무사무관 온수진이라고 합니다.

## 위 원 장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6호 안건설명

### 제6호안건설명자

서울로 식생의 의미와 환경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1970년도에 만들어진 서울고가가 지난 5월20일 보행로로 개편되었고, 어제까지 94일 동안 총 366만 명 정도가 방문하셔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비판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녹지 관련해서는 녹지가 빈약하다는 의견도 있고, 식물들이 생육들이 잘되지 않는 것들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고, 도시녹지로서의 효용성 자체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 연구용역을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자체가 선형공원이기도 하고 인공지반에 만들어진 것들이기도 하고요.

바람이라든지 기후환경이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남산이라든지 한양도서라든지, 멀리는 한강까지 연결되는 중앙거점녹지의 성격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식생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방안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런 자료들이 여러 가지 홍보용도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동식물상이나 생물에 대한 ... 조사라든지 온습도, 식생, 경관, 녹지율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향후 관리방향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까지도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화 해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11개월 정도 기간을 담았고, 예산은 1억1,700만 원 정도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6호 안건심의**

위 원 장

11개월이면 당장 시작해도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금년 예산은 얼마로 잡으신 겁니까?

제6호안건설명자

금년 예산을 1억1,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위 원 장

금년 예산을 1억1,000으로 잡으시고 내년에는 또 있는 거고요?

제6호안건설명자

그 돈을 내년까지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위 원 장

그게 가능해요?

000 위원

이월하겠다는 겁니다.

위 원 장

이월해갖고요?

제6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서울로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였는데, 서울시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뉴욕의 하이라인이라는 폐철도를 녹지로 만드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아마 의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었는데, 네덜란드 건축가, 조경가한테다가 디자인을 맡겨가지고 다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고 설계를 이렇게 했느냐, 올라갔더니 콘크

리트 바닥밖에 안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데에 대한, 완공해서 운영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한테서 그런 폭넓은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 제6호안전건설명자

이 연구용역이 저희가 제안 드린 거는 녹지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다른 연구용역들이 일부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가장 큰 것들은 보행정책과라는 부서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이용패턴이라든지, 어떻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즐기시고 주변에 어떻게 소비하시는지까지 포함한 그러한 부분들은 보행정책과에서 연초부터 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서울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시문화적인 명소로서 이용객들이 어떻게 알고 이곳에 오고, 어떻게 이곳을 이용하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읽어내는 그런 것들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녹지 자체에 대한 가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도 이것들이 조금 더 빈약하다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보강할 것인가라든지, 시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약간 고민이 있어서 조금 급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 000 위원

거기 사실은 조성한지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인공지반이고 동식물이 서식하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1년 동안에 동식물 조사할 게 있습니까?

녹지율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그렇게 뭐가,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자연수목원이라든지 아니면 조성한지 5년 내지 어느 정도 상당 기간 흘러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우리가 예측했던 식생의 변화, 예측했던 동식물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 자연적인 경관을 잘 유지보호해야 될 경관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1년 동안 새로운 동물종이 발견된다든지 새로운 식물종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식물이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설계의 잘못이고, 관리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도 거기 식물들을 보면 설계상으로 반영이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1년 동안 많이 비중을 들만한 많은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제6호안건설명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남산이라든지에서 날아오는 곤충류이라든지 조류들이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또 부딪히거나 해서 실제로 사체를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해서 풀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이곳이 사실은 화분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녹지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하튼 이 주변지역이 굉장히 녹지가 없는 지역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간거점녹지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들까지 담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욕심에 ...

000 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온습도 변화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자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녹지울 면에서요?

제6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거는 실제 모니터링이고, 그다음에 생태환경변화 모니터링의 경우는 모니터링을 위한 매뉴얼작성이 과업의 내용입니까?

제6호안건설명자

아닙니다.

식생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218종의 식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지고 하는 그러한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이 돼야 될 것이고요.

000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보는 건 이 내용에 보면, 앞에 말씀은 모니터링 자체로 되어 있고, 맨 끝에 말씀은 생태환경 모니터링 매뉴얼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업내용이에요.

제가 여쭙는 거는 앞에 그거는 실제 모니터링이고 맨 밑에 거는 매뉴얼 작성만 하는 겁니까?

제6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하는 게 아니고요.

제6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러면 앞에 모니터링 자체는 요즘은 센서 같은 있어갖고 자동적으로 데이터...라든가 전산 있지 않나요, 관리단에서요?

제6호안건설명자

센서를 ... 협조를 받아서 일부 IOT라고 해서 요즘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벤처업체에서 일부 비용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체계적인,

000 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냐고 여쭙보는 겁니다.

제6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안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여쭙 게 아까 제가 놓쳤는데, 유사 관련연구로서 서울로 개장하고 나서 서울로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라든가, 서울로 굉장히 많은 아

이디어하고 수고를 해서 만드셨는데, 그에 비해서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또 그거 자체 개선하는 방안에 관한 그런 용역은 없었습니까?

제6호안건설명자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000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제6호안건설명자

예, 자체적으로 문화 쪽에서 이용이라든지 문화 쪽 측면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000 위원

서울연구원에서요?

제6호안건설명자

주로 심층인터뷰 같은 것들 나오셔가지고 설문조사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000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제6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모니터링은 우리가 이거를 만들기 전에 이런 모니터링계획을 다 짜서, 지금 오픈했으니까 운영단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하나이고, 그게 모니터링이 안 되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가 봐도 죽고 이러잖아요,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모니터링만 하는데 인력 풀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용역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

모니터링만 나와 있던 말이죠.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제6호안건설명자



모니터링만,

000 위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숙련된 인력들이 가서 식생이랄지 온도랄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지요.

제6호안전설명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000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6호안전설명자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연구용역입니다.

000 위원

아까 말한 과장님 말씀대로 모니터링 한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과업내용서를 아까 ... 기심에서도 지난번에 서면으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자문이나 전문가나 자문 사례들 수합을 해서 과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주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호안전설명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물러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6호안전설명자

고맙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주심위원님.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 자체에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 방식으로 해서 ... 나누어가지고 이게 무슨 산관목과, 무슨 과  
해서 그 나무들만 심다보니까 어느 구간은 산관목과의 교목들만 짝  
다 있고 어느 구간 가면 이끼식물만 다 있는 거예요.

여름에 가면 이끼식물 그쪽 지나가면 죽어요, 뜨거워서, 그들이 전혀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전혀 저는 공감을 못  
하겠고, 그런 거에서 예를 들어서 식생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무를 심  
으면 그늘을 줄 수 있는 것이 반그늘에서 자라는 식물도 있고, 그 밑에  
음지에서 잘 자라는 초화류도 있고 이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층식재로 돼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는 그냥 교육의 목적으로 참나무만  
쭝르륵 심고, 저쪽에 가면 목련나무만 쭝 심어놓고, 저쪽 가면 이끼류  
만 쭝 심어놓고 이렇게 하니깐, 너무나 유아적인 발상으로 디자인했다  
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나무를 알고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무를 알고 싶으면 수목원 가면 됩니다.

수목원 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자라나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학명  
도 있고요.

서울로라는 그곳에서 나무 이름을 교육을 시키는 자체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도로위에서 보여지는 경관도 잘 보여주고 또 휴식공간도 만들어주  
고, 사실 뉴욕의 하이라인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런 모습으로 서울로가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개인적  
으로 불만이고, 저는 서울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설계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설계를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바꿔 나가야죠.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경허함으로 서울시가 바꾸겠다는, 부족하거나 또는 비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순응하고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노력보다는 이런 모니터링, 거기에서 기후조건이 어떻게 되고 습도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습도 다 조사해서 나무가 죽으면 다시 나무를 잘 살게끔 거기에 하는 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이 안 맞는 나무는 빠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무들도 걱정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부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것도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생을 할 때는 설계단계에서 이미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고도가 몇m이고 여기에서는 바람이 어느 정도이고 습도가 어느 정도라는 사실 ... 특성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수목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하는 겁니다.

조사해 놓고 다 하고 보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나 보겠다.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잘 적응하는 거는 이미 사실은 다 설계단계에서 고민해서 나무선정을 해야죠, 위치라든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한 1억의 넘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겠다는데, 저는 모니터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생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바꾸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관련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구간은 나무가 일정 구간 없으면 어때요?

그곳을 분수를 만들든지 수경시설을 만들든지 다양한 사람한테 재미와 뭔가를 줄 수 있는, 흥밋거리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나무 자체의 생태적인 특성조사만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시민들의 입장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연구가 아닌가 우려가 들어서, 만약에 이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단지 모니터링만 하고 끝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못 가봤는데 우연히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뜨거워서 못 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식생에 관한 것보다도 실제 운영 현황이라든가 그런 개선 같은 것이 더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하기 하면 계속 해야 돼요, 연차적으로 외부에 맡겨서요.

웬만한 것들은 IT로 직접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식생경관 같은 건 웬만한 건 공무원이나 관련되는 공기업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서울숲 같은 데 가면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서울숲도 하드웨어에 끝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거기 접목시켜서, 거기도 누군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로 발렌티어리하게 자원봉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조사하면 계속적으로 되고 애정을 갖고 하게 되고 뭔가 소프트웨어를 거기에다 입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역 한 번 주고 나면 그냥 반복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똑같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000 위원

사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년만 하고 끝날 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위 원 장

세 개 부서에서 걱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주심위원님이 부적정으로 나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대변하는 프로젝트 같은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000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뭔가 필요는 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서에도 보면 모니터링에 끝나지 않고, 식생관리랄지 식생경관관리 이런 것 관련 프로그램운영이랄지 다양한 그런 계획방안까지 마련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요구해서 검토의견으로 해서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다른,

000 위원

또 다른 거는 모니터링을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용역으로 발주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모니터링이면 발주는 안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힘들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방안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 이거는 단에서 하든지, 단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별개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 원 장

그럼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건가요?

000 위원

물론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축적된 데이터 없이 처음부터 재기 시작해서 11개월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000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그거를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요.

그래서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000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가 있냐 없냐가 제가 볼 때는 키거든요.

누가 받아가지고 11개월 동안해서 모니터링만 10개월하고 있다가 1개

월 정도 하면 퀄리티 있는 게 나올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처음에 계획해서 식생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가지고 개선방안 짜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1억을 주고 어느 분들이 와가지고 11개월 동안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000 위원

예산은 적정한가요?

1억1,000 짜리 예산에 8,000만 원 인건비거든요.

위 원 장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일반 경쟁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데는 대학교밖에 없어요.

식물학과가 있고 곤충학과가 있고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연구소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일 쉽게 하는 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면 사실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00 위원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위 원 장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유도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결정된 다음에,

000 위원

내부적으로 예산은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규모도 그렇고 인건비 비중도 그렇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00 위원

‘너무 단이 바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분한테 의뢰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면 오히려,

000 위원

사람 사서 모니터링 하겠다 것처럼 보여요.

000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학술용역은 사실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000 위원

1년치 월급 주고 ‘가서 모니터링 해라.’ 그런 것처럼 예산이 보여서요.

000 위원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좋게 호평이 있는 경우도 있고 비판이 굉장히 강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역의 ... 이런 거를 파트별로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는 과제 자체는 식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식생에 대해서는 그 환경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식생들이 되어 있어서 다 죽어가고 있고,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 자체는, 고가 위에 노출이 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사계절을 나누어서 굉장히 혹독한 기후나 이런 변화를 겪고, 그러다 보니까 전 기간에 걸쳐서 환경변화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변화를 체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하고 끝나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개선방안을 내놓는 거냐.’ 했을 때 표현이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지, 모니터링을 기초로 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어떤 식생들이 맞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

000 위원

보니까 연구보조원이 너무 많아요.

연구원은 한 명밖에 없고요.

000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은 두 번째 문제이고, 연구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왕 서울시에서 돈을, 세금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저는 서울로에 대한, 사실은 이런 혹독한 환경이라는 것은 이미 조사가 다 되었어야 되고 이미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여기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예측했던 것들이 제대로 맞아떨어졌느냐에 대한 일종의 팔로우업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새롭게 재는 거예요?

이미 다 그거는 설계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고, 설계과정에서 이런 기온조건과 습도와 바람과 햇빛과 환경에서는 이런 식물은 걱정하지 않고, 또 걱정하고 판단이 되는 것들이예요.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모니터링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물론 서울연구원에서도 문화적인 거, 행위에 대한 이런 것도 하지만, 특히 배식설계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당한가.

원래 설계자 의도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만들어놓고 보니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비판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서울시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빨리 빨리 조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다들 동그란 콘크리트로, 박스로 만들어놨잖아요, 화단으로요.

그러면 그런 배식방법이 과연 적당한가.

어느 구간은 걱정할 수도 있지만, 어느 구간은 그러한 방식이 식물의 특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배식방법, 식물을 바꾸는 것보다도 플랜트박스를 다른 형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콘크리트 판을 없애고 쪽 깔아서 다층식재로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배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단조로운, 절구통 같은 콘크리트만 쪽 다 세워놓고 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배식설계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식물의 특성과 그에 부합하는 설계방식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설계전문가들, 또 시공관리, 또 수목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용을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향후 장·단기적으로 이 서울로라는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도 저는 1년 동안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제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바꾸어주고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의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적으로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들려오는 이런 의견들도 제대로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방향을 고민을 해서 만들면 보다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0 위원

여러 번 오다 보면 이 회의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제안한 학술용역을 심의하고 가부를 결정하느냐.

하다 보면 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적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부적정이라고 하고서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 박스에서 나와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이 틀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팀을 주는 것이 어떤가. 다시 완전히 새로운 계획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0 위원

000 위원입니다.

... 말씀드렸는데 제가 답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심에서 판단을 하기는 사실은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공사 전에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분별로 검토가 됐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수종이랄지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관리방안을 운영을 수립하는데 표현상

‘모니터링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관리방안 운영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선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아까 과업내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 원 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게 결국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서울로 운영단의 존재의 이유일 것 같아요.

이런 게 못 하게 하면 서울로운영단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거는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자문위원회 정도로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계획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만 하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00 위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그것도 연구용역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들을 듣고서, 실제로 임플멘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분들이 하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000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오히려 학교에 있다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위 원 장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00 위원

종류나 이런 ...

게다가 예산에 보니까 책임연구원, 연구원 각각 한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면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본질적인 부분 필요는 한데, 계획서의 내용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위 원 장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것 자체가 쉬운 일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나중에 어차피 9월 달에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그때 수정을 하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

그럼 심의, 재심의, 부적정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 원 장

그런 방법을 해도 되죠.

000 위원님은, 어떻게,

000 위원

우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심의보다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조건부였다가 아까 말한 과업내용서를 불명확하다고 하니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쪽 부분도 업무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심에서 이거를 검토를 했었거든요.

## 제6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일단은 그러면 000 위원님 의견대로 적정이나 부적정이나 먼저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죠.

여섯 번째 안건, 서울로운영단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네 분입니다.

위 원 장

네 분 해서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적정으로 심의하는 대신에,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안을 재심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대신에, 여러 가지 자문교수단이 나 새로운 콘셉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간 사

전원입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부적정으로 심의됐고요.  
팀장님께서서는 선생님들 말씀대로 모니터링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교수님들의 또는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들으면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 설치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000 위원

자문뿐만 아니라 연구진 구성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하는 연구가 아니라고요.

위 원 장

예,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000 위원

포럼 같은 거나 위원회 운영 같은 거를 통해서,

000 위원

자문단이 아니라 연구진이 탄탄하게 들어가는,

000 위원

그런데 예산은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하고요.

위 원 장

그리고 그분들이 자문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쉼까요.  
오늘도 늦어지네요.  
저는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 16시13분 정회. )

( 16시22분 속개. )

위 원 장

7, 8번 안이 맨 뒤로 빠지고요.

9번, 10번, 11번, 12번 식으로 하는 거죠?

서울시관계자

예, 맞습니다.

위 원 장

9번 먼저 하겠습니다.

### 제9호 안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사전-사후 오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위 원 장

앉으십시오.

본인소개해 주시고요.

제9호안건설명자

평생교육부 친환경급식과 유춘상 주무관입니다.

위 원 장

주무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 제9호 안건설명

제9호안건설명자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사전-사후 소비자 및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지난 6월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급식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건강한 식재료를 직거래방식으로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농어

촌에는 제값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도농 간 균형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동구가 5월부터 완주군과 1대1 매칭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10월부터 다섯 개 자치구가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로는 자치구와 매칭될 산지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의 추진필요성을 보면, 첫째로는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정책적 효과를 시범사업 초기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고, 또 공공급식시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공공급식 지원사업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치구와 공공급식시설의 참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통해서 미치는 정책적 효과를 각각 부분별로 살펴보면, 공공급식시설에는 아무래도 차액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친환경식재료와 국산농산물 사용비율증가, 가공식품비율감소 등을 통해서 급식질 얼마큼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그 절감효과가 있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차액지원으로 1인1식 당 5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500원이 적정한지, 아니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제9호 안전심의

위원장

주무관님,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9호안전설명자

올해 첫째라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000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게, 전 시에 적용하기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서 몇 개 샘플 되는 데 하는 것인데, 이게 시범사업하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시범사업 자체가 사전적인 효과성 검토예요.

그런데 하시겠다는 것은 시범사업의 초기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책적 효과라는 것은 어차피 시범사업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올해 시작했는데 초기에 ‘이게 정책이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용역을 또 발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선 시범사업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발주가 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막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용역을 그것도 9개월씩이나 줬다.

이런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실무 차원에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또 다시 용역을 줘서 9개월씩하고 6,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제9호안건설명자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기는 했는데요.

시범사업 몇 년 동안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아니고, 일단 첫해를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보고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것인데, 첫해라서 시범사업 이름을 썼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평가하고 효과분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부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 통계가 절감이 됐든가 아니면 식습관 개선효과가 있다든가, 정책발전을 위한 재원 같은 부분은 행정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특히, 장기적인 효과분석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게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서 질환예방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초점인데요.

그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첫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초기에 기초자료를 많이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급식질을,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전사업 분석이거든요.

급식질이라는 게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증진, 소비자가 얼마나 건강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연구 이와 관련된,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간에 연구를 할 때 보통, 최근에 한 중국의 논문은 20년간의 텀을 두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통제그룹과 반대편의 그룹 간의 비교를 하는 그런 식의 굉장히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가 건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6,000만원 9개월로 이게 가능할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9호안건설명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측정이 가능한 것들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향후에 다른 연구용역,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이나 여성가족재단이나 같이 연계해서 코어트조사 같은 것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장기간에 필요한 것들은 아니구요.

평가도구를 만들고 단기간에 측정이 가능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사후... 정책발전을 ...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단기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소비자 측면에서요.

제9호안건설명자

소비자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식재료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식생활교육



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식습관이 개선이 되었는지, 또는 우리 먹거리,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지, 이런 주관적인 ...할 수 있습니다.

위 원 장

과장님.

000 위원

하반기에 다섯 개 시군 ...

제9호안전설명자

예, 확정됐습니다.

000 위원

소비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분석, 건강증진 정도에 대한 판단을 초점을 두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내용이 다른데,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가고 있는 게 정확히 뭐죠?

제9호안전설명자

장기분석이 필요한 평가도구 개발하는 것하고, 단기에 측정 가능한 예를 들면 급식시설에서 급식비가 올라갔는지, 가공식품비율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농가소득이 향상되었는지 같은 단기간에 측정 가능한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9호안전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주심위원님.

000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연구계획서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연구의 목적이 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방법을 활용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측정도구를 개발한다는데 측정도구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범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있는지 아니면 이론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해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학술연구용역으로서 걱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데 제가 논의필요라고 했던 것은 여쭙보려고 했는데,

위 원 장

본인도 잘 모르시죠.

000 위원

본인이 명확하게 모르시죠.

000 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 중에 소비자라든가 좋은 먹거리 먹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다른 지방 간의 상생도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제목 자체로 볼 때는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접근이 쉽지만, 내용을 얘기한 것처럼 애네들이 건강해지는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연구가 되는 것 같아요.

위 원 장

그거하고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살찐는지 안 살찐는지 어떻게 알아요?

000 위원

예, 저도 살찐 사람으로서 그런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위 원 장

그거는 알 수 없는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000 위원

포인트는 도농상생 쪽으로 포인트 잡으면 가능하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틀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 원 장

될 하시겠다는 건지, 결국은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하면 옥먹을 것 같으니까 남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홍보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00 위원

연구의 핵심이 측정인데, 예산을 보면 측정에 반영된 부분이 SGI 500만 원 정도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측정도 어려운데, 측정을 열심히 하려는 부분도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000 위원께서 적정으로 하셨는데 디펜스를 해주시죠.

000 위원

사실 이게 공공급식 쪽에서도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도농상생이라는 측면과 ... 생산자 쪽에 도움을 주고, 또 소비자도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훨씬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자고 하는 정책 취지인데, 이런 취지에 맞게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물어봤던 게 과연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연구를 할 것인지, 이게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한 것 같지는 않네요.

실제로 효과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먹거리가 식단에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생산자 쪽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조사해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외에 다른 거 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용역 자체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 보완시켜서 가는 부분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9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없으시네요.  
이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 제10호 안건

서울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 현황 진단 및 재설계 제안

위 원 장

열 번째 안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본인소개해 주시고요.  
짚막하게 안건설명해 주십시오.

## 제10호 안건설명

제10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장 강진용이라고 합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명은 서울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 현황진단 및 재설계 제안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재정분권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국면에 맞추어서 서울시의 재정분권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내용은 보통교부세, 세제개편 국고보조금 개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이고요.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타 지자체의 입장이 다르고 행자부, 기재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체의 예상되는 입장을 생각해 보고, 각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도 과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제10호 안건심의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현황진단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현황은 새로운 게 없지 않나요?

제10호안건설명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담당자나 공무원의 준해서 진단, 현황과 전문연구자들의 진단, 현황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지방재정학회에 기대되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10호안건설명자

큰 방향은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제개편이라고 했을 때 ‘현재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8대2인데 6대4로 갈 것이다.’ 그게 저희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6대4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떠한 세목을 움직일 것인지,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인가 양도소득세인가 구체적인 세목을 정하고, 그 세목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왔을 때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의 세수를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런 거는 대강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제10호안건설명자

대강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기재부나 행자부, 타 시도, 다양한 기관 주체들과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 명확하셔서 질문이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10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이 용역은 기존 선행연구를 보면 대강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새로할 필요는 있나요?  
주심이신데요.

000 위원

계속적으로 재정분권에 관련 해서는 ...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각종 실제수단을 어떤 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요.

위 원 장

그런 문제죠.

000 위원

그리고 시도의 같은 경우에 재정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 각 수단별로 재정격차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 그러면 그대로 가기에는 어렵거든요.  
이거를 어떤 보완적인 수단을 통해서, 지방소비세를 늘린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늘어나는 포지션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로 다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다시 내놓는 구조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수단별로 각 방법론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들은 있지만 존치하는 문제, 뒷받침들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논의과정에서 실리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는 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 원 장

000 위원님, 주심이신데요.

000 위원

기준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육사세제개편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치 속에서 어떤 것들이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략으로 어떤 것을 지방세로 하고, 그리고 또 지방재정력에 대한 논란이 있을 텐데, 여기에 또 어떻게 서울시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인지, 굉장히 내부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서울시 내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짚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냥 보완사항으로 했던 것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제개편에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개편에 관한 내용부터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를 2,000만 원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겠다는 게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히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정 관련 법령개편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관련 조항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완전히 맨땅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 용역비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고, 같이 연구진하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용역을 내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제10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이렇게 작은 돈으로 해주면 고맙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한 분 걱정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안건 하겠습니다.

## 제11호 안건

서울시 먹거리보장 구현을 위한 먹거리취약계층 실태조사

위 원 장

앉으십시오.

본인소개해 주시고요,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제11호 안건설명

제11호안건설명자A

식품정책관 주무관 이햇님입니다.

제11호안건설명자B

담당팀장 윤그것이 회입니다.

제11호안건설명자A

서울시에서는 6월20일 날 먹거리마스터플랜을 발표를 하면서 먹거리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의 채택한 먹거리선언문의 가장 기본은 기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을 위한 것이고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정신이 서울시민의 그 어느 누구도 먹거리로 차별받지 않는 기본권 보장하자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주된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마다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식품안전성 미확보된 가구가 5.6%, 서울시 총 18만 가구 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미확보된 가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한 번도 어떤 식으로 취약계층이 먹거리를 먹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용역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먹거리마스터플랜에 이런 정신을 녹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제11호 안건심의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이게 필요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서 연구의 사각지대 같은..

제11호안건설명자A

맞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리서치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선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제11호안건설명자A

찾아가는 동사무소라고 해서 간호사분하고 ...분들께서 65세하고 70세분들을 항상,

000 위원

행정자료하고 빅데이터 다 이용해서 그거를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제11호안건설명자A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전수조사,

000 위원

전수조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11호안건설명자A

그 자료 자체를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000 위원

그거를 하고 또 표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표본조사하려면 모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11호안건설명자A

그렇죠.

000 위원

모집단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성 미확보 계층 50%가 모집단인가요?

제11호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그런데 보면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또는 계속 나오는 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예요.

기초생활보장.

그러니까 식품안전성 미확보 계층은 여기 읽어보면 경향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몰려있다는 거고,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완전히 저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먹거리 취약계층은 모호한 얘기이고, 모집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표본을 얼마나 사용할지 어떻게 조사할지, 예를 들어서 찾동이나 간호사나 복지플랜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나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조사예산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실태조사잖습니까?

실태조사는 조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비는 4,2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조사한다는 면에서는, 보통 우리가 조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을 하나도 안 갖춘 거예요.

제11호안건설명자A

말씀을 드리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준비하였습니다.

1단계 자체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표본조사 샘플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4,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준비된 조사원들에 대한 돈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인건비 중에서 그분들이 조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사원과 연구원에 차별을 둔 것이지, 연구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라는 인건비 자체에는 조사원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조사원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그 동사무소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조사원과 연구원을 분리하다 보니까 조사비가 조금 적게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비 책정할 때에도 보통 연구용역단가의 50%가 연구비로 많이 들하시는데, 저희는 35%밖에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조사비를 최소한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고 자체 수의계약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보산진이 국민건강영향조사를 처음 실시했었던 국가공공기관으로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사정을 해서 부탁을 드렸던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이분들은 자체가 이미 훈련된 조사원들이 많이 확보하고 계셔가지고, 약간의 조사비를 그쪽에서 세이브해 볼까 해서 그렇게 책정됐던 것이고, 연구원의 연구원비가 조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먹거리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제11호안건설명자A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살짝 차상위 계층에 계시면서 먹거리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많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이거를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 1단계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 1단계 조사에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분들을 찾아내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표본집단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완벽하게 매치되지는 않겠죠?

제11호안건설명자A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고소득층 중에서도 먹거리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죠.

제11호안건설명자A

그런데 고소득층은 저희가,

000 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

제11호안건설명자B

주민소득 80% 이하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000 위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미 되어 있고요.

만일 그렇다면 그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먹거리 취약 여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11호안건설명자A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플링으로 맛보고 같은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맛보고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쌀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그 쌀을 해먹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밥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저작활동이 안 되어가지고 그거를 씹어 드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쌀은 그냥 돈으로 바

꾸는 수단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실제로 봤고, 국장님께서 희귀병 원장님으로서 그런 저소득층 봉사활동 다니시다가 그런 광경을 많이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쌀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71페이지가 저희 사업이고 그다음 페이지 2-2번 사업이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한 다음에 어떤 먹거리를 줘야지 이분들이 영양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그런 조사가 나온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다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번 정부에서 과일바구니랑 이런 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업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앞서서 나갔을 경우에,

000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까 쌀을 찹기가 어렵다고,

제11호안건설명자A

쌀은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가공하고 이런 거의 문제인데, 고소득층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있기 때문이라서, 결국은 소득 수준, 돈의 문제 아닌가요?

제11호안건설명자B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고소득층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 하고요.

기준을 주민소득 80%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000 위원

저는 고소득층에 어떤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줄 때, 그러니까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해 줄 때 결국은 돈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제11호안건설명자A

맞습니다.

000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쉬워지는 것 같아서,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조사가 그냥 경제적 취약계층 실태조사로 대체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굉장히 식품업계를, 혹은 그런 분야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11호안건설명자A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경제적 취약계층 분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을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먹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분들은 돈을 더 주면 다른 쪽으로 쓰시지, 먹거리 쪽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적인 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 많은 조사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배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말씀은 상당히 겹치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체제나 서울시의 복지체제의 기본은 현금급여중심이거든요.

현금급여도 사각지대가 많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여오셨는데, 그게 우리 모두 다 그게 누구인지, 그게 뭔지 처음에 왔는데 실제 ...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태조사를 할 것이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구체적인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냐.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현금급여중심인데, 직접 모든 분들에게 취약계층이 발생하면 도시락서비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

그럼 쌀, 밥을 저작하기 힘든 분들은 유동식을 다 개발해서 전부 다 드

릴 것이냐.

제11호안건설명자A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해갖고 그렇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게 명확하게 딱 떠 오르지 않거든요.

제11호안건설명자B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세 80% 이하의 대상에서,

000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되니까, 두 번째는 서울시 먹거리구조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 실태조사해도 하시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거리 취약계층 이러니까 약간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서울시민은 먹거리를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돈이 있으면 차별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그렇죠?

차별이라는 표현보다는 먹거리를 보장하는 쪽으로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세워야지, 돈이 없다고 차별받는, 돈이 있는데도 차별받으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약간의 수정 같은 것,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000 위원

첨언을 하자면, 아까 현금 지원 같은 것들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바우처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바우처가 딱 나와서 마켓에 가서 찍으면 살 수 없는 것은 찍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담배를 산다.

살 수가 없어요, 그 카드네요.

이렇게 되게 쉬운 방법도 있는데 큰 비용이, 2억이 들어가거든요.

## 제11호안건설명자A

그런데 그런 사업도 하고자 하려면 실태가 있어야 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먹거리 실태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군가가 조사를  
해보려고 했었던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그렇게 먹고, 저희가 바우처카드를 드렸을 때 그분들  
이 바우처카드로 그거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능한지, 이분들  
이 무엇을 먹고 있고 주변에 무슨 슈퍼마켓이 있으며, 이런 환경에 대  
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실태조사가 한 번  
정도는 돼서 그게 바우처카드로 대체가 가능할지, 바우처카드 같은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한데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사랑의 바우처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는 집밥프  
로젝트가 새롭게 나타난 게 그거에 대한 보완차원으로 나온 것도 있습  
니다.  
그래서 바우처카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어린이한테는 바우처카드가 나왔을 때는 실태조사에 따라서 그  
거에 대한 게 끊임없이 연구되고 하면서 보완이 되고 있는데, 먹거리  
취약계층은 말씀하신 대로 돈을 생활비를 준 거지, 먹거리에 대한 거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정책과 맞추어서 시기적절하게 선행돼야 되는 연구가 아닌  
가 생각됩니다.

##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제11호안건설명자A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 제11호 안건결론



위원장

주심위원님.

000 위원

순수하게 학술적인 면에서 심사를 한다면 이거는 어려운 프로포절인데,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위원장

뜻은 알겠어요.

000 위원

뜻은 알겠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는 리서치를 절 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프로포절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특히 저소득층의 섭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그거를 리서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위원장

그런데 저는 담당부서하고 하는 일이 매칭이 되느냐 생각해 보면,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식품정책과가 왜 이런 일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000 위원

식품정책과가 7월에 식품안전과였다가 식품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먹거리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됐고요.

먹거리 마스터플랜이라는 거를 1년 넘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속 디벨롭을 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에 대한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에서 나왔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다른 정책들을 해나갈 때, 효과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한 것 같고요.

소관 자체는 식품정책과가 시에서는,

위원장

맞는 건가요?

000 위원

맞습니다.

위 원 장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수의계약을 왜 보건산업진흥원으로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꼭 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니더라도 공개입찰도 가능한 거거든요.

자꾸 여쭙보면 어차피 디펜스 하실 거니까 제가 안 여쭙았는데,

000 위원

제가 딱 여쭙보려고 했는데 그만하자고 그러셔가지고요.

위 원 장

너무 길어지잖아요.

000 위원

거기 수의계약하겠다는 데가 먹거리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연구,

위 원 장

많이 했나요?

000 위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이쪽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 같고요.

수의계약을 할 이유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 원 장

저도 수의계약은, 2억짜리인데요.

000 위원

인건비가 연구보조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 연구보조원 세 명, 두 명, 한 명 이 사람 가지고 서울시, 이거 어렵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연구원의,

위 원 장

그렇죠.

000 위원

연구원 소속된 사람들이 인건비 쓰는 거고 책임연구원을 10개월에,

000 위원B

저희 예산파트 쪽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취약계층들이 다양하  
거든요.

아동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  
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해서 사업을 추진할 부서는 없  
기 때문에, 용역 자체도 식품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  
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단순히 실태조사로 끝나 버리면, 조사하고 거기에  
서 정책적인 게 아무것도 아젠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업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실태를 조사해서 이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들까지  
과업에 넣어서,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분들을 활용할 부분이기 때  
문에, 과업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원가계산서에 보면 이분들이 연구원  
소속된 분들은 조사 나가실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다른 말씀입니다.

000 위원

말 그대로 실태조사라면 이게 학술용역의 성격이 아니고 일반용역으로  
가야죠.

단기에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한다고 하면요.

000 위원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아요.

위 원 장

그런데 예산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제안을 하려면 보건산업  
진흥원이라는 데가 정책제안을 하면 뭘 하겠어요?

000 위원

저도 수의계약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도록,

위 원 장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000 위원

참고로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들 중에 보면 금액은 작지만,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제공 사업모형 하겠다고 또 용역하겠다고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 실태조사 나오고 나면 또 거기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쪼개를 다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가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부분은 별도로 연구적으로 빼고, 일반용역으로 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 단시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조사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맡기든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든지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000 위원

관련 문제에 대한 너무 단순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태조사 짝 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영양이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해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바우처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바우처 운영에도 문제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바우처만 준다고 해서 다 밥 해먹고 이런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 술, 담배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개선에도 도움을 줘야 되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지만 접근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 제11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판단하시기로 하시죠.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이시네요.

그럼 이 안건으로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재규정화가 필요할 것 같고, 나눔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열두 번째 하겠습니다.

## 제12호 안건

### 서울특별시 일·가정 양립 지원 조례 제정 방안 연구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본인소개해 주시고요.

3분 내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12호 안건설명

제12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정책과의 노동협력팀장 이대원이라고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은, 서울시 일·가정 양립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임신, 출산기와 영유아기 등 단계별로 일·가정 양립 관련한 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0.98 정도로,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들이 실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개선하는 상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서울시의 이와 관련한 지원조례가 두 개 있습니다.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현재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정책의 근거가 되는 모법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 있는데, 이거에 ... 서울시에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의 일·가정 지원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겸한 검토를 하고 모법인 남녀고용평등법에 ...하는 서울시의 일·가정 양육 지원조례를 제정함이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입니다.

## 제12호 안건심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좋은 취지의 연구인 것 같은데요.

다만, 약간 우려되는 게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 노동정책담당관실에서 하게 된다면 그분들과 업무협의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밸런스 잡는 데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조치라든가 협의를 해보셨나요?

제12호안건설명자

이 조례 관련해서요, 이 재정연구용역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실과 노동정책과에서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나, 현재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팀장 사이에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연구용역 기관 선정과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성가족정책실과 함께 협의할 예정입니다.

000 위원

지금은 구체화가 안 된 거죠?

보니까 구체적인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제12호안건설명자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와 유사한 과제가 진행 중 이라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제12호안건설명자

여성가족재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요.

유사연구용역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봤는데, 현재 이것과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연구용역은 2014년 이후에는 세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건이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연구용역인데요.

한 가지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 및 법제정비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실제 2014년에 이것을 진행한 후에 실제로 '현재에 서울시에 있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연구용역은, 2014년까지 진행했던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2017년 이후까지 반영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서울시의 통합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조례를 구축하는 게 목표, 그래서 2014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용역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원 장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주 궁금한 게 3년 안에 뭐가 변했을까요?

애들은 똑같은 애들일 거고, 없던 사람이 새로 애를 낳았을 거고, 그 3년 동안에 크게 변한 게 있을까요?

꼭 실태조사를 해야 되나요?

## 제12호안건설명자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다만 이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 이전에 즉, 2014년 이전까지의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의한 실제 출산율현황과 지난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합계 출산율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 안에 뭔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단계별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

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무언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추산되지 않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늦으셨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끝을 맺죠.

수고하셨습니다.

제12호안건설명자

고맙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말씀해 주시죠, 주심교수님.

000 위원

저는 걱정으로 봤는데요.

일단 사안 자체는 중요하고, 또 조례제정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연구가 일단락되는 동시에 함께 조례제정을 통해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 다양한 주체들이 이 안에서 관련된 주체들이 있는데, 이게 노동정책담당관실에서 그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다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가 나올지, 그 정도만 되면 저는 4개월에 3,500만 원은 좋은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신감은 넘쳐흐르시는데 실제 내용은 어떠실지는요.

위 원 장

다른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조례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 아닌가요?

실태조사한다고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까지 필요할까요?

000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해자들끼리 합의만 보고, 그거를 외부에도 사람들과 연계만 하면 이런 연구없이도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아마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거겠죠.

000 위원

하나 궁금한데, 주심위원님께요.

일·가정 양립 지원 실태를 누가 조사를 하나요?

용역을 맡기면 그 사람들이 하나요?

000 위원

그렇죠.

000 위원

이거를 조사해야 되나요?

이미 다 나와 있지 않나요?

000 위원

이미 통계가 나와 있죠.

000 위원

기관들이 다 할 텐데요.

000 위원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기존의 것이 모순이 있으니까, 출산율도 낮고 전혀 없었다는 게 저분들이,

위 원 장

조례 바꿨다고 애를 낳을 수 있으면,

000 위원

저의 적정의견은 아무 상관없이 판단해 주시고,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하나의 실에서 진행할 만한 하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책적인 어젠다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면밀하게 협의했다는 게 제시가 됐으면 안정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도 보시면 거기 내용입니다.

000 위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 돼요.

000 위원

조례를 보통 공무원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많이 하셨고  
요?

000 위원

실태조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죠.

000 위원

현업에 계신 분들로서 이게 주로 많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

위 원 장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외부한테,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분들일 텐데  
요.

000 위원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000 위원님도 적으셨지만, 기존연구가 너무 많아요.

일·가정 양립은 진짜 직무만족도 다음으로 많아요.

## 제12호 안건결론

위 원 장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시시오.

간 사

두 분이십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팀 쪽에서 7번, 8번 하겠습니다.

## 제7호 안건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분배 체계개선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제7, 8호안건설명자

조직담당관실 조직관리팀장 안현민입니다.

위 원 장

앉으십시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죠?

제7, 8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그럼 두 개 한꺼번에 순서대로 해주시죠.

제7, 8호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 제7호 안건설명

제7, 8호안건설명자

먼저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과제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양요구해야 될 기능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가로 현재 30% 정도 되는 자치사무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40%까지 확대해야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행안부에 1차적으로 그간 논의되어 오던 단위사업 중심으로 고민을 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기존 지방분권 관련된 연구들은 자치행정, 특히 자치조직권, 그리고 입법권, 제정권 등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논의를 많이 이루어져왔고, 지방이양과 관련된 연구들은 단위사무 중심이거나, 아니면 이미 이양이 완료된 사무의 효과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이양완료된 사무의 법령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주로 맞추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특히 서울시가 수행

하는 것이 적합한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을 분석하고 새 기준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수행해야 될 사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적합기능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과업내용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판례나 기존 법령구속을 통해서 현행 사무배분체계 기준을 분석하고요.

이와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원칙 하에서 어떤 기능이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적합한 기능과 대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백업논리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당 연구는 서울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무현황을 파악하고, 대정부 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의사결정사항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유지를 위해서 소속기관인 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향후에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든지, 이양 필요기능을 건의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원 장

여덟 번째도요.

제7, 8호안건설명자

다음 제안설명 드릴까요?

**제8호 안건**

**효율적 조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제8호 안건설명**

제7, 8호안건설명자

다음번에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와 도로사업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지난 12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13년에 공무원 직종개편이 이

루어졌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기능직종이 폐지되고, 관리운영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의 주된 인적 구성인 관리운영직군이 신설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인적 구성이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소는 사업분수 세 개를 포함해서 총 47개이고, 5,800여 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소 중에 인력규모가 가장 크고, 직종개편 전에 기능직비율이 높았던 곳이 상수도사업본부와 도로사업소입니다.

각각 사업소의 절반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구용역 대상으로 상정하여 조직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 두 사업소의 경우에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준공된 바 있고,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는 상황이어서, 업무수요 역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직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규모의 인력이 당 사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선행연구는 13년도에 소속기관 조직진단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조직진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에 이전인력 구성을 기준으로 진단한 바가 있어서, 현재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제7, 8호 안건심의

### 위원장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배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 000 위원

사무배분 내용을 보니까 지방에 원칙재정립, 기준재정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안이 있으신가요?

제7, 8호안건설명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안은 없고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후속연구로 기존연구에서 이런 재배분기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000 위원

그러면 기준도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제7, 8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000 위원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나요?

제7, 8호안건설명자

계략적으로 분야를 나누어서 여섯 개 분야에 21개 기능, 단위사무 정도의 사이즈인 기능들을 1차적으로 8월 중순에 행안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 정도가 시에서 정리하고 있는 기능이고, 이거는 실제적인 실무적인 수요에서 판단된 결과입니다.

000 위원

그럼 건의했을 때는 나름 기준을 가지고 골랐을 거 아니에요?

제7, 8호안건설명자

그동안 실무적으로 해오면서 이왕에 필요하다고,

000 위원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한 부분이다?

제7, 8호안건설명자

예, 느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건의했습니다.

위 원 장

과장님.

000 위원

기술직입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도로사업소 한다고 하는데 사

실 이 말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위 원 장

여덟 번째로 넘어가시는 거죠?

000 위원

예, 8번이요.

혹시 진단 후에 인력운영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사업에 대해서 아웃소싱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할 것인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7, 8호안건설명자

직접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외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하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이 조직이 어떤 기능을 수  
행하는 것인지 적합한 포괄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000 위원

그럼 포괄적으로만 나오고 구체적인 안은 별도로 또 수립하실 건가요?

제7, 8호안건설명자

그 적합기능들이 선정되면, 그에 따른 인력구성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000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노조나 이쪽에서 그런 부분을 진짜 기능인력  
들이 일반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하는 스타일에 문제가 많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포괄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향후에 써먹을 때 예  
를 들어서 조금 더 범위를 늘려가지고 아예 아웃소싱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시켜가지고 용역을 결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기술직으로서 그렇습니다.

000 위원

7번 과제에서 아까 보완관리를 위해서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에 주신  
다고 했는데, 서울시립대는 보완관리가 되고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안 되나요?

산하기관은 되고 다른 기관은 안 되나요, 보완관리요?

보안각서를 받으신다고 아까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제7, 8호안건설명자

시립대학교 해당 연구진이 유사연구 수행경험이 있는 측면도 있고요.

000 위원

그거는 별도 문제이고 아까 보완사항 말씀하신 거요.

제7, 8호안건설명자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물론 다른 연구진에 맡기더라도 보안각서를 징구하면 보완관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00 위원

제 생각이지만 예전에 하셨던 분이 그대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만요.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제7, 8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사무배분 먼저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특별히 반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저도 걱정이라기보다 제안으로 했던 게 굳이 서울시립대를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 원 장

학회가 참여해도 될 것 같고요.

000 위원

시립대로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제 소관이라서 말씀하기 조심스러운데요.

기존에 지방이양이라는 말은 많이 나왔거든요.

기능중심의 ...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행정학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사실상 없어요.

... 아주 디테일한 단순허가권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갖고 이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의견수렴해가지고 가고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진짜로 의미 있는 지방이양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일단 진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이 말렸을 때 또다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시립대 쪽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보자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 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립대가 딱 걱정하고 이런 거보다는, 어디 특정기관 했을 때 결과적으로 기능대로 제대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시립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뽑아 내겠다 이래가지고 의도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000 위원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 원 장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그렇죠?

000 위원

금액 대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있어서요.

## 제7호 안전결론

위 원 장

그러면 심의하죠.

먼저 사무배분 하겠습니다.

이 안전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한 분.

위 원 장

이 안전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 제8호 안전결론

위 원 장

그다음에 조직진단 안전하겠습니다.

이 안전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한 분.

위 원 장

이 안전도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오늘 한 것 정리해 주십시오.

간 사

심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전 총 12건인데요.

걱정이 6건, 부적정이 6건입니다.

1번 안전은 걱정인데요.

열한 분이 적정의견을 주셨고요.

2번 안전도 걱정인데 열 분이 적정의견을 주셨습니다.

3번은 부적정입니다.

아홉 분이 부적정의견을 주셨습니다.

4번은 걱정입니다.

위 원 장

번호대로 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번호대로, 심의의견에 있는 번호대로요.

간 사

4번 안건은 적정입니다.

열한 분이 적정의견을 주셨습니다.

5번 안건은 재심의 안건이었는데요.

일곱 분이 부적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적정입니다.

6번 안건도 부적정입니다.

일곱 분이 부적정의견을 주셨습니다.

7번 안건은 열한 분이 적정을 주셨기 때문에 적정으로 처리됐습니다.

8번 안건도 적정입니다.

열한 분이 적정의견을 주셨습니다.

9번 안건은 부적정인데요.

열한 분이 부적정의견을 주셨습니다.

10번 안건은 적정이고요.

열한 분이 적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위 원 장

10번 안건이 부적정 아닌가요?

간 사

10번 안건은 지방재정분권 확대입니다.

위 원 장

제가 표시를 잘못했군요.

간 사

11번 안건은 부적정인데 열 분이 부적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12번은 안건은 부적정인데요.

아홉 분이 부적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적정 6건, 부적정 6건입니다.

위 원 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안전심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서 마지막으로 개인별 심의의결서하고, 총괄심의의결서를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폐회